

14장: 새로운 유월절로 이해된 예수

주제: 십자가 처형 이야기는 예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문학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양”이란 호칭을 기독교 역사에 도입했고, 예수의 가장 인기 있는 이미지로 만들었다.

논점: 십자가 처형 의미가 예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고, 그의 죽음은 초기부터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석되었다.

십자가 이야기 전체는 유월절 행사의 일부로 전해졌다.

십자가 처형은 유월적 체험을 통해 해석되어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문서화될 때, 그것은 유월절에 일어났다고 말해졌다.

십자가 처형이 유월절의 맥락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과정을 보고, 예수가 유월절 희생양과 비슷하게 이해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의 의미에 대해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새로운 기독교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이기도 하다.

질문: 유월절과 하나님의 어린양 이미지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어린양”이란 말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1:29에만 나온다.)

15장: 속죄일의 상징들 아래서 이해된 예수

주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속죄일의 상징들 아래에서 이해해야 한다.
십자가 처형의 내용들은 역사가 아니다.

문제 제기: 기독교 신학의 초석이 된 교리인 “속죄(Atonement)”라는 말이
어떻게 기독교 전통에 들어 왔는가?

논점: 1. 유월절의 희생양과 동일시된 예수는 유대교의 다른 명절인 속죄일(The Day of Atonement: Yom Kippur)의 희생양과도 동일시되었다.

2. 예수와 속죄일의 연결은 바울에게서 시작되었다.

3. 후대의 성서저자들은 그 연결을 바탕으로 성서를 썼고, 그 연결은
초기부터 예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한 부분이 되었을 것이다.

마가/마태: “몸값(ransom)”→ “대리자(substitute)”

요한복음: 예수와 속죄일 희생의 연결이 마무리됨.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4. 하나님과 하나인 곳 에덴에서 인간은 추방되었다는 유대인들의 신화가
이 이미지들 배후에 있다.

이러한 신화에서 나오는 인간관에서 구원이란 인간의 소외가 극복되는
미래에 대한 비전. 따라서 구원은 <용서와 회복>으로 묘사됨.

구원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oneness with God) 순간.

이처럼 속죄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되었다. (240쪽)

5. 속죄일의 예배: 하나됨/온전함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표현됨.

이날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상징적 희생물로
동물 두 마리를 골라, 한 마리는 희생제물로 다른 한 마
리는 속죄물(sin-bearer)로 사용했다.

희생양: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

속죄염소: “세상 죄를 지고 간다.”

6. 속죄일의 이 두 개념은 기독교가 이방인들의 세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본래적인 속죄일 예배의 맥락을 떠나, 일종의 법적인 계약으로 간주
되기 시작했다. 죄의식과 공포, 참회와 사면, 보상과 징벌의 문이 열린다.

글쓰이의 질문: 예수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함을 체험하는가?

나의 질문: “죄”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아직도 적절한 개념인가?